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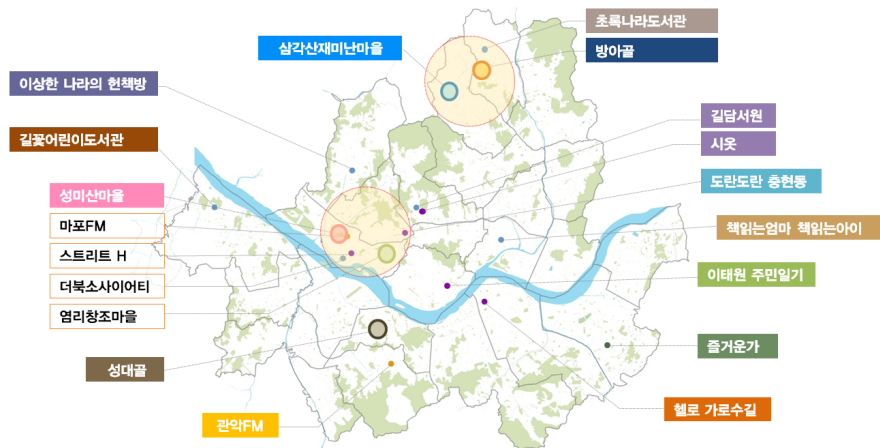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 이 연구는 서울시 마을문화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마을문화활동을 육성·촉진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임.
- 연구기간은 2012년 1월16일부터 2012년 7월15일까지이며, 주요한 연구내용은 현장인터뷰를 통해 마을문화활동실태를 조사하고, 그 실태에 맞춰 서울시의 마을문화 정책 전반을 컨설팅하는 것임.
- 조사결과, 마을(문화)활동에 관한 한 서울의 현재적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선, 활동의 개체 수 자체가 적고 그 형태 또한 개인적 수준의 관심이나 욕망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임.
- 일부는 주민동아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 경우는 ‘성미산마을’이나 ‘삼각산 마을’ 등 대부분 공동체적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임.
- 그 외 일부 지역에서 동아리 형태의 마을문화활동이 있으나 아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표 1〉 마을문화활동 자치구별 분포 현황

자치구	현황	자치구	현황
종로구	길담서원, 시옷	송파구	즐거운가
용산구	이태원 주민일기	마포구	염리동 참조마을, 성미산마을 마포FM, 스트리트 H 더북소사이어티
성동구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은평구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동작구	성대굴	서대문구	도란도란 충현동
강북구	삼각산재미난마을	강서구	길꽃어린이도서관
도봉구	방아굴, 초록나라도서관	관악구	관악FM
강남구	헬로 가로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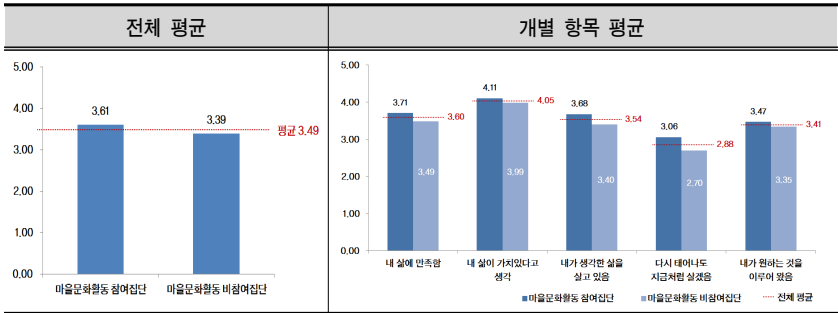


〈그림 1〉 마을문화활동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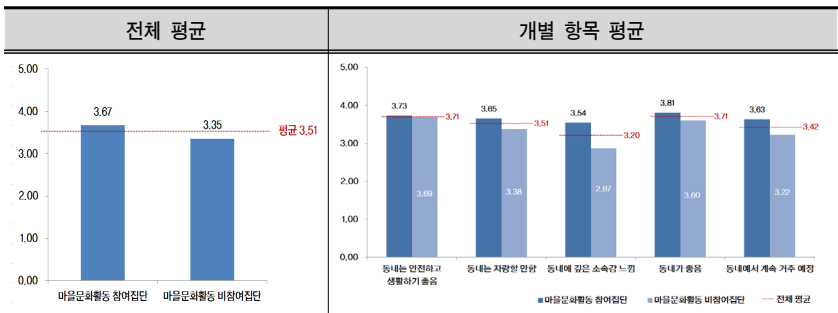
- 때문에 문화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제임.
- 우선, 동아리 형태의 마을문화활동이 보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형태의 마을문화활동은 마을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진 마을이거나 활동가적 기질을 담은 지역 내 기획자가 있어야 가능한 형태인데, 그와 같은 기획자를 찾고 양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잡지를 만들거나 도서관·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을문화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들은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마을성 형성에 목표를 두기보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거나 애착, 또는 시설 및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선택한 형태임.
-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그럼에도 마을문화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5월22일부터 2012년 6월4일까지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문화활동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비슷한 규모의 일반시민들을 무작위 표집하여 조사한 결과, 마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은 삶과 지역만족도에서 일반시민에 비해 유의적 차이가 있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설문조사 결과 - 삶에 대한 태도



〈표 2〉 설문조사 결과 -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이에 따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 문화활동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는 이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하에 ‘마을공동체 회복’을 세 부적 비전으로 내세우고, 경제와 복지, 문화,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이 중 문화는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네예술창작소 설치·지원>,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우리동네 미디어문화교실 운영>, <마을단위 작은 미디어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기획되어 있고, 명사들의 자료나 지역특화의 문화재 등을 통해 마을을 만드는 <지역 기반 동네박물관 조성> 사업 등이 추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서울시 사업은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이고, △현재의 지역단위 마을문화활동을 배려하지 않고 있으며, △전략적인 체계성이 없고, △문화부문이 갖는 특성보다 표준화된 행정적인 절차에 기초화되어 있어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따라 마을의 현재성과 문화의 속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마을문화 육성정책과 마을공동체 회복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I. 정책제언

○마을문화활동 촉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문화의 특성과 공동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마을문화 특성을 살펴보면, 마을문화는 자기개발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라 볼 수 있음.

—여기에는 예술적 장르가 중시되지 않으며,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욕구와 이에 바탕을 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전제되어 있음. 예컨대 카페를 연다거나 목공방 등을 열어 주민과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형태가 마을을 형성하는 하나의 문화형태로 등장하고 있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마을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임. 따라서 서울 마을문화활동의 현재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1. 정책기조

- 향후 마을문화활동의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존 문화활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이를 의미화·기호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둘째, 각 마을문화활동을 연결하고 서로 학습하도록 하여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서로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발적·자생적 형태의 발전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마을축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이를 외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넷째, 직접적인 지원보다 마을단위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나타날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문화활동 및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함.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체육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시설 내 공간을 주민자치형 마을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과제임.

2. 추진사업

-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들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그러나 그 사업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닌,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분위기, 쉽게 말해 마을중심의 문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문화활동이 나타났을 때 이를 관리하고 후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마을문화활동 마케팅 사업과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 마을문화축제 및 박람회의 개최 등을 제안함.
- 또한 장기적으로 각 마을 간 서로의 활동을 교류하고 이를 통해 서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을문화은행’ 등과 같은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추진사업 1 : 마을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 목적	마을 내 주민문화활동 지원	
추진 방향	경제적 지원이 아닌, 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분위기 형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	
추진 사업	마을문화활동 마케팅	소식지 발간, 온-오프라인 홍보, 사례지 탐방프로그램 운영
	마을문화활동 지원인프라 구축	마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 - 거점별 활동지원센터 마련(기존 기관 활용) - 상호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마을문화축제 또는 박람회 개최	마을문화활동을 결산하고 네트워킹하며, 아카이빙하는 사업
비고	마을문화은행 운영	위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마을문화은행 설치·운영 - 마을문화활동을 적립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 이후 가상화폐로까지 확대 가능 ¹⁾

- 다른 한편,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활동할 기획자 및 전문(예술)가 육성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마을문화활동가 측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활동을 독려할 전문(예술)가는 마을문화활동 촉진 및 육성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1)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은 ‘넙실’이라는 가상화폐로 도시단위 문화클럽을 양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마을문화활동가’들로 인증하고, 이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마을문화활동가 협동조합 구성 등을 통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추진사업 2 : 마을문화활동가 지원사업		
추진 목적	마을 내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 및 기획자,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방향	활동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지원 및 활동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업 추진	
추진 사업	마을문화활동가 지정 및 육성	각 마을 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인증하는 프로그램 - 각 마을 내 활동하는 활동가를 인증하여, 마을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함
	마을문화활동가 협동조합 구성	마을에서 활동하는 문화활동가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운영 - 조합을 통해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내로 포섭함
	마을문화지원 기업 및 단체(기관) 후원사업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집단들을 후원함으로써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민간협찬을 통한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제반의 시스템 및 인프라를 갖추는 것임.

- 제반의 지원시스템과 관련된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은 마을문화 속성상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마을문화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직접적 사업을 통해 만들면 되지만, 마을문화는 그 속성상 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
- 이에 관련된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를 기반으로 제반의 활동이 나타났을 때 이를 후원하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마을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공시설의 마을문화 공간화 사업 등을 적극 제안함.

추진사업 3 : 마을문화활동 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조성 사업		
추진 목적	마을 내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조성함.	
추진 방향	기존 공공시설 및 신규설치 시설 등을 혁신하여 마을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기반으로 활용	
추진 사업	마을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각 마을 내 활동 및 각 시설과 공간, 단체 등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지원기구 구성 - 별도의 설치보다는 기존 공공시설을 혁신하여 구성 - 거점별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성을 판단하여 서울지역 내 종합지 원센터 우선 설치
	마을문화공간으로 공공시설 혁신사업	각 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마을문화활동 시설로 혁신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적 혁신유도 - 자율형 마을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